

제33회 안동권씨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 성황리 거행

‘안동권문 하나 되어 송조사상 이어가자’

권기 1095년 5월 4일 10시 제33회 안동권씨청장년회 전국체육대회가 안동권씨의 영원한 분향인 안동에서 경주, 부산, 산청, 서울, 일본, 음성 등 27개 선수단과 내외 귀빈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능곡회(회장 권태형) 주관으로 “안동권문 하나 되어 송조사상 이어가자”를 모토로 내걸고 이경민, 정소영 아나운서의 사회로 성황리에 거행되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 사전 녹화된 영상으로 안동 종친회 신년인사회와 체육대회 고사제, 작년 추향제 모습 등을 보여주었다. 추향제는 식전행사로 고고장구 공연을 펼쳐 운동장의 열기와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동동동 장구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은 뛰고 맥박은 고동쳤다.

먼저 선수단이 입장했다. 전년도 개최지 울산을 비롯하여 강릉, 경산, 경주, 안강, 대구, 대전, 문경, 봉화, 부산, 산청, 서울, 시흥, 예천, 안양, 영천, 일본, 영주, 영덕, 원주, 음성, 의성, 장원, 청송, 청주, 합천 순으로 입장했다.

선수단 입장이 끝나자 권광택 경상북도의원이 내빈 소개를 했다. 주요 내빈으로는 권영창 대종회 회장, 권기창 안동시장, 권중근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지역종친회협의회장, 권길상 고문, 권계동 고문, 권오을 전 국회의원, 권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권재준 원로원 회장,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권석환 안동문화원장, 권광택 경상북도의원, 권기윤·권기탁 안동시의원, 김형동 국회의원, 김의승 전 서울 시부시장, 권광택·권기수 대종회 상임위원, 권갑현 편집위원장, 권오상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일본선수단은 권영철 회장을 비롯하여 권승일 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과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국민의례와 애국가 1절을 제창했다. 다음 순서로 권영훈 준비위원장이 제33회 안동권씨 청장년체육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본부석 맞은편에서 축포가 터지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대회 개막을 축하했다. 다음은 대회가 개막되었다. 곧이어 안동 권문을 위한 권공희 시낭송가의 시낭송이 있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안동권문의 자긍심을 북돋우는 시낭송으로 울림이 컸다.

다음은 성화 봉송. 지금까지 어느 대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성화 봉송으로 시조 태사공 묘소에서 제

화하여 대회장까지 차로 봉송하고, 권영훈 준비위원장님이 첫 주자로 활활 타오르는 성화를 지켜보고 운동장으로 들어섰다. 참석자들은 모두 일어나 환호했다. 성화는 2번 주자 권영상 초대 능곡회장과 권오직 능우회장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2인 1조가 되어 트랙을 돌아 최종주자에게 전달되었다. 최종주자 권태형 대회장과 권광택 경상북도의원은 성화대에 함께 오르고 마지막으로 권태형 대회장이 점화했다. 점화하는 순간 불꽃이 활활 타올랐다.

권태형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시조 묘소에서 자연 체화하여 오늘 성화대에 점화했다. 시조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자네가 내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다. 후손들이 시민운동장에 많이 와서 감사하고 후손들 사랑하고 권문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셨다. 시조님께 감사하고 큰 합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며, 모든 분들 환영하고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영창 회장은 축사에서 전국에서 많은 족친들이 오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김형동 국회의원과 권영진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종회 고문과 상임위원, 파종회장님과 대종회 임원이 많이 오셨다. 권태형 대회장과 권영훈 준비위원장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동 권가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시조 태사공은 나라를 만든 일등공신이었다. 권율장군은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시에 나라를 구했다. 양촌 권근 선생은 조선 최초 대학을 지낸 분이다. 여러 가지로 봐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근나라 세운 아골라기 조조 자손이라는 얘기도 있다. 권기 1100년 몇 년 남지 않았다. 역사문화관광심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조 영정도 만들고 있다. 동상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사기 살날 수 있도록, 시조 묘소 찾을 수 있도록 방법 찾고 있다. 권문을 위해 함께 노력해 보자. 즐거운 날 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고 말했다.

권철환 안동종친회장은 축사에서 89년 제1회 체육대회가 안동에서 시작됐다. 35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다. 지금은 반백이 되고 70, 80이 되었다. 노고가 많았는데 시조 어른께서 잊지 않고 후손들께 큰 복 내릴 것이다. 대회 준비하



선수단 입장

느라 능곡회 회원들 고생 많았다. 우리 생전에 이것이 마지막 안동체육대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최고 대회가 되도록 진심과 정성을 다했다. 이제는 새천년의 시작이다. 이 자리는 새천년을 위해 비전을 선포하고 세대를 교체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다음은 젊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지역의 젊고 건강한 권문을 발굴해서 새천년 역사 다시 써 내려갔으면 한다. 여러분의 수고로움이 영광과 보람으로 남을 것이다. 건강하시고 사고 없이 돌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행사 준비한 권철환 회장님과 권태형 대회장, 권영훈 준비위원장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동권문은 대한민국 최고 명문 씨이고 속모도 권씨이다. 이렇게 보면 저는 외빈이 아니라 내빈이다. 대한민국에 권씨 없었으면 대한민국 안 만들어졌을 것이다. 안동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노력하는 안동권문 파이팅이다.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은 권문의 분향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축하드립니다. 즐겁게 지내시고 돌아가실 때 월영교 등을 둘러보고 가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전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일본선수단과 지역선수단과 읍면동 족친 여러분께 고맙다. 행사를 준비한 권태형 대회장과 권영훈 준비위원장 그리고 행사 준비 뒷바라지 한 권철환 회장님과 권영창 회장께 고마운 마음 전한다. 능우회와 능곡회 회원 여러분 고생하셨다.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잘 놀다 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영진 국회의원 당선인은 늘 감사하다. 안동권씨 성 잘 타고 나서 여기까지 왔다. 누가 되지 않게 정치하겠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일정상 먼저 축사를 하고 자리를 비웠다. 권 시장은 안동방문을 뜨겁게 환영하고 감사하다. 안동은 선비정신의 분향이다. 나라 어려울 때 목숨을 걸고 싸웠고, 평안하면 후학을 양성하고 부모에 효도했다. 안동은 선비정신을 실천한 위대한 영웅들의 산실이다. 고려 때 시조 태사공의 공로로 안동이 되었고 조선 때는 과거 급제로 나라에 기여했으며 일제 때는 독립을 배출하였고 오늘날에는 자유선진국가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다. 고려의 찬란한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이 되어야 한다. K-문화가 그 증거다. 안동에서 즐겁게 노시고 가시길 바라며, 체육대회를 축하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태형 대회장은 작년 개최지인 울산청장년회 권명달 대회장과 권혁준 준비위원장 권응목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한 지난 20여 년간 안동청년회를 이끈 권대해 전 안동청년회 회장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했다.

선수 선서는 권기호, 권상호 전 능곡회장이 선수단을 대표하여 화합을 도모하며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했다.

선수단 퇴장으로 개막식은 끝이 났다. 곧바로 각 선수단은 6인 7각 달리기, 왕 공 굴리기, 협동 공치기, 신발 양궁 종목에 출전하였다. 출전 선수는 5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 고장의 명예를 걸고 싸웠다.

다음은 노래자랑을 했다. 강릉, 경주, 서울, 영천 등에서 축전은 물론 머느리도 나와 자기자랑을 신나게 했다. 어개가 뽕뽕뽕하게 하는 흥겨움과 함께 열띤 경쟁을 펼친 결과 안동권문의 머느리 경주 대표 정현희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초대 가수 윤성과 지원이의 공연이 이어졌다. 윤성은 임마가 안동권씨라고 소개했다. 가수 지원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공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대회 마지막 순서로 시상식을 거행했다. 종합우승은 마산창원전해 선수단이 차지했다. 안동권씨 청장



성화 점화. 권광택 의의원, 권태형 대회장(오른쪽)

년체육대회 33회 만에 처음으로 우승의 깃발을 거머 쥐었다고 한다. 준우승은 예천선수단, 3위는 봉화선수단이 차지했다. 예천선수단은 입장식부터 흥을 감추지 못하고 열광하며 분위기를 압도했다.

권태형 대회장 회장은 오늘 모두 수고 많았다. 내년 영주대회를 기약하자며 폐회를 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회가 내려지고, 하루 동안 활활 타올랐던 성화도 꺼졌다.

안동능곡회는 1989년 제1회 안동권씨 청장년체육대회를 안동권씨운동장에서 개최한 이래, 2001년 4월 안동과학대학 운동장에서 제13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올해 23년 만에 제33회 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제33회 안동권씨 청장년체육대회는 그 규모로 보아 역대급 대회였다. 역시 안동이 안동권문의 분향임을 대회를 통해 여실히 보여주었다. 권철환 회장은 안동권문이 안동권문의 분향에 와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능곡회가 있어서 가능했다.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이처럼 안동능곡회와 안동종친회는 권철환 회장님과 권태형 대회장과 권영훈 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안동권문의 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3천여명의 참석자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한 부녀봉사대의 봉사 또한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권행완 편집국장



성화봉송



성화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개막 축포에 선수단이 환호하고 있다.



권태형 대회장의 대회사



권공희 시낭송가의 시낭송



감사패 전달



종합우승 마창진 선수단, 준우승 예천선수단, 3위 봉화선수단



노래자랑 시상식. 경주대표 정현희씨 대상 수상



33년 만에 처음 종합우승을 차지한 마창진 선수단



능곡회



새천년 안동권씨 부녀봉사대

대종회 권주미 과장 세 자매 체육대회에 참가

서울에서 세 자매가 안동권씨청장년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다. 권주미 대종회 총무과장, 둘째 권유미와 막내 권경미가 그 주인공이다. 둘째와 막내는 직장을 마치고 청량리에서 밤열차를 타고 안동에 내려왔다. 둘째와 막내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대회가 커서 깜짝 놀랐고 내용도 알차고 맛있는 음식도 챙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재미있었다고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참석하겠다고 말



막내 권경미, 권주미 과장, 둘째 권유미(왼쪽부터)

했다.

권행완 편집국장